

[1] 만일 어떤 형제가 힘든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명령받았더라도, 명하는 사람의 명령을 온갖 양순함과 순종함을 다하여 받아들일 것이다.

[2] 만일 (맡겨진) 일의 부담이 자기 힘에 너무 과도한 것으로 보이거든, 인내성 있게 그리고 적절한 (때에) 자기의 불가능한 사유를 장상에게 말씀드릴 것이지, [3] 거만하거나 반항하거나 반대하는 (태도로써) 하지 말 것이다.

[4] 만일 말씀드린 후에도 장상이 전에 내린 결정대로 명령을 고수(固守)하거든 아랫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줄로 알고 [5] 하느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사랑으로써 순명할 것이다.